〈법화경〉 사경만 해도 도솔천에 태어나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㊻ 법화경의 공덕

"세존이시여, 말세의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이 경전을 구하는 자나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자, 사경하는 자들이 이 〈법화경〉의 이치를 수행하려 한다면, 21일 동안을 응당히 일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21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여섯 개의 이빨을 지닌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들에 에워싸여 중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저의 몸을 그 사람 앞에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이롭게 해주며, 기쁘게 해주겠으며, 또 다라니주를 설해주겠습니다.

그가 이 다라니주를 얻으면 아무도 그의 마음을 깨뜨릴 수 없게 되며, 저도 이 사람을 항상 수호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의 이 다라니주를 설하도록 허락하소서.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다라니를 듣는다면 보현의 신통력을 알 것이며, 〈법화경〉을 염부제에 유포하여 이를 받아 지니는 자가 있으면 이는 모두 보현의 위신력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설한 그대로 수행한다면 이 사람은 보현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한량없고 가없는 부처님들 밑에서 선근을 깊이 심은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사경만 하여도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응당 도리천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팔만사천의 천녀들이 갖가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몰려와 영접해 줄 것이며, 그 사람은 곧 칠보의 관을 쓰고 채녀들 가운데 즐겁게 있게 될 것이거늘 하물며 이를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 지녀 읽고 외워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가 죽을 때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손을 내밀어 공포를 없애 줄 것이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 곧 미륵보살이 삼십이상의 상호를 갖추고 큰보살들의 무리에 에워싸여 백천만억 천녀의 권속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라면 마땅히 일심으로 스스로 쓰거나 남들도 쓰게 하며,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바르게 기억하며 설한 그대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래가 멸도하신 뒤 염부제 안에서 널리 유포해 끊어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오탁악세의 사부대중이 〈법화경〉을 받아 지닐 때의 지침을 밝히고 다라니를 설하여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말한다. 다라니를 설한다는 것은 불 · 보살이 가진 주술적인 신비한 힘으로 수행자에게 가피(加被)를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간을 21일로 정해 정진하면 육아백상(六牙白象)을 타고 와 법화행자(法華行者)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 이는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장(魔障)을 없애 주겠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도고마성(都賈魔盛)이라 하여 도가 높아질수록 마군의 장애가 치성해진다고 하였다. 21일 정진이란 이러한 마장을 없애기 위한 참회기도 같은 것을 말한다. 원각경에서도 삼관(三觀) 이십오륜(二十五輪)의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서 120일, 100일, 80일의 세 기간을 근기에 맞춰 정해 참회기도 등을 해야 한다고 경문에서 밝혀 놓았다. 〈능엄경〉은 전체 10권 가운데 9권과 10권이 변마장(辨魔章)이며, 기신론에서도 지관을 닦을 때 나타나는 마경(魔境)을 설하고 있다. 정법을 수행하다가 마경에 끌려가면 사법(邪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설한 내용의 특이한 점은 〈법화경〉 수지가 보현행 실천이라고 밝힌 점과 〈법화경〉을 사경만 하여도 미륵정토인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다고 한 점이다. 보현행이란 보살도를 실천 완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화엄경〉에서는 10종 광대행원을 설하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이 이미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라고 경문에서 명시해 놓았다. 이승(二乘)의 근기는 〈법화경〉을 수지 못한다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경전을 악보처럼, 지계를 연주하듯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㊻ 지계청정(持戒淸淨)과 무애행(無碍行)

누구나 한 번쯤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매료되어 악기를 배운 적이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막연히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악기를 연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를 배울 경우, 처음에는 제대로 소리를 내기조차 힘들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음정이나 박자가 틀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럴 때마다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만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계(戒)를 받아서 지키는 것도 악기를 처음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계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했더라도 그런 행동들이 익숙해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늘 자기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간혹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왜 나만 계를 지키느라 애쓰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악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불교 경전을 보면서 점검해보아야 한다. 불교 경전에는 계를 어겼을 때 받는 과보와 계를 지켰을 때 얻는 공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물론 계를 지키는 목적이 공덕을 쌓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응보를 믿는 불자라면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계를 지키기 위해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간혹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반성해서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초기불교에서는 불교도의 모범이 되는 출가자에게는 재가자보다 철저히 계를 지킬 것이 요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음계(不婬戒)의 준수였다. 이런 까닭에 초기불교에서 지계청정(持戒淸淨)은 범행(梵行)을 닦는 것이었다. 이 계를 지키는 수행자라면 이성을 눈으로 보거나 가까이하지 않을 것이고, 이성과 대화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행자가 그 계에 얽매여서 자신을 속박하면 할수록 꿈속에서 이성의 모습을 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꿈속에서 이성을 탐닉하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수행자는 자신의 번뇌를 억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겠지만,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날뛰는 망념을 끊어 없애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경론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망념을 끊어 없애야만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한다. 즉, 진정한 불음계는 눈앞에 이성이 있어도 애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욕에 구속되지도 속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업식(業識)의 훈습, 즉 감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훈습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행을 쌓은 수행자가 아니라면 끊어 없앨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수행을 계속해서 십지(十地)의 경지에 들어간 보살이라야 끊어 없앨 수 있다. 이 경지에 들어간 보살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서 형식적인 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계청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뇌리에 박힌 선승들의 무애행(無碍行)도 지계(持戒)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속박되지 않은 '걸림 없는 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의 가식이 없어야만 걸림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능숙한 연주자가 악보 없이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㉒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무분별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야

불자 여러분! 〈대승기신론〉에서도 지관수행을 권장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지관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止)를 통해 일념상응의 경지에서 무분별지를 얻고, 관(觀)을 통해 생멸하는 현상세계에 대한 후득지(後得智)를 얻어 중생구제의 자비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고 이를 통해 범부는 생사고(生死苦)를 벗어나고 이승은 열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다."고 지관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지관수행은 첫째, 사마타수행을 통해 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경계상을 그치고[止] 다스려서 일심(一心)으로 돌아가 분별없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것[無分別智]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계들의 인연생멸상을 관찰하여 그 대상의 실재성(實在性)과 무상-고-무아(無常-苦-無我)를 철견(喆見)함으로써 일심(一心)을 증득[後得智]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육조 혜능 스님도 지관(止觀)수행의 '지'와 '관'을 '정(定)'과 '혜(慧)'로 대비하여, 지(止)를 정(定)으로 표현하고 관(觀)을 혜(慧)로 표현하여서 '지관쌍수' 또는 '정혜쌍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혜능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정혜일치(定慧一致)'라고 표현하며 정과 혜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과 혜가 따로 떼어서 실천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또한 북종선의 대통 신수대사 역시도 '정혜균등(定慧均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수대사는 정혜쌍수의 선 수행을 통해야만 보살은 열반에 탐하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심부동(心不動)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타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은 떨어질 수 없는 불이(不二)관계에 속해 있으며, 궁극적 의미로는 진여본성의 체상(體相)에서 본각본적본정(本覺本寂本淨)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수행, 즉 지관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은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참 나의 진여본성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법의 참모습이 바로 자신임을 알지 못하고서 무명으로 망념을 일으켜 허망한 경계에 집착하며 갈애와 애욕을 일으켜 악업을 짓고 그 과보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사윤회의 이 고통스런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여본성에 상응하여 본래 갖추어진 자연지혜를 발현시켜서 무명과 미혹을 깨뜨리고 무분별의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불교의 신앙을 통해 현실적인 괴로움을 벗어나 복락을 얻는 것도 불교의 현실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이유가 바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무명속에 가려진 상태로 세상을 살면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행무상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상락아정의 행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지관수행을 통해 망념과 분별을 멈추고 진여본성과 상응할 수 있는 지관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진여본성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음을 일으켜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면 진여본성과 곧바로 어긋나게 됩니다. 망심과 망경계에 집착말고 그대로 무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드시 눈 밝은 명안종사를 만나 지관수행의 원리와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배워서 올바른 지관수행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지금까지 실천해온 불교신앙이 비록 현실적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위한 지관수행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일일시호일

유방암이 앗아간 소박한 꿈…
치료만이 희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우샤니씨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전이 가능성 높아 항암치료 필수지만 매회 120만원은 부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